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11. 29.(수) 배포즉시 배포 2023. 11. 29.(수)

2030 세계박람회, 사우디 리야드로

- 부산시, 2035년 부산세계박람회 재유치 적극 검토 -

□ 11.28(화) 오후 프랑스 파리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사우디 리야드를 확정**하였다

○ **사우디가 119표, 한국이 29표, 이탈리아가 17표를 얻어 사우디 리야드가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었다.

<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개요 >

- **(일시·장소)** 11.28(화), 프랑스 파리 / **(주최)** 국제박람회기구(BIE)
- **(참석대상)** 182개 BIE 회원국 대표, 박람회 유치신청국 대표단 등
- **(의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신청국 경쟁 PT 및 개최지 투표** 등

□ 개최지 투표 직전 이루어진 최종 PT에서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하여 **박형준 부산시장, 반기문 前 유엔 사무총장, 나승연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 등이 연사로 참여하였다.

○ 최종 PT를 통해 **국민의 강렬한 유치 열망, 개최도시 부산의 매력, 역대 최대·최다국 개도국 지원 계획** 등을 강조하였으며, **비즈니스 기회, 부산 이니셔티브** 등 부산엑스포를 통한 협력 기회에 대해 역설하였다.

□ **한 총리**는 “민관이 하나되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으나 기대하고 염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부산 시민들께 기쁜 소식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민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BIE실사단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다” 면서 “부산 시민들의 꿈이 무산되어 마음이 무겁다” 고 말했다.

□ 우리 정부는 한국을 지지해준 회원국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유치과정에서 약속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실행해나갈 방침이다. 글로벌 외교 네트워크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과 경제를 받치는 국가자산으로 계속 관리·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유치위 관계자는 “투표 결과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것은 가슴 아프지만, 과거에도 주요 국제 대회와 행사는 여러차례 재도전 끝에 성사된 경우가 많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시도과정 자체가 외교의 지평을 넓혀왔다”고 했다.

□ 부산시는 비록 투표 결과는 아쉬웠지만, 부산의 뛰어난 역량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2035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다시 한 번 나설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부산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의 땀과 눈물과 노력과 열정을 기억하고 도전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우향제 (044-200-2211)
		담당자	전문위원	김태민 (044-200-2220)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책임자	과장	박영철 (044-200-2136)
		담당자	사무관	박철순 (044-200-2135)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책임자	팀 장	김덕구 (02-2036-9810)
		담당자	사무관	이재훈 (02-2036-9826)
	부산시	책임자	과 장	명지정 (051-888-6450)
		담당자	담당자	문저윤 (051-888-645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